

연구논문

한국 행정학 조직연구주제 경향분석:
한국조직학회보 게재논문(2004-2022)을 중심으로

박 시 진*
김 국 진**

- I. 서론
- II. 행정학 조직연구경향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자료 수집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요약〉

한국조직학회보는 2004년 창간 이후 다양한 조직학 연구물들을 출판하며 성장을 해왔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간된 343편의 한국조직학회보 게재 논문과 동일 기간에 발간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본 학술지의 조직연구주제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제어들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리더십, 조직몰입, 조직문화,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학 연구주제와 실제 정부조직관리 간 연계성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학문과 실무 간 일정 간극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정권별 유의미한 주제어의 차이는 없지만, 각 정권의 국정운영 기초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기간상으로 다음 정권 기간에 연구주제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넷째, 정부조직관리지침의 핵심 주제어들과 질적 연구와의 연관성이 양적연구와의 연관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학 이론 혹은 주요 연구 주제들과 정부 조직관련 실무나 현안 주제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바탕으로 한국조직학회보 조직연구경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조직연구경향, 정부조직관리, 내용분석, 네트워크분석]

* 제 1저자,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sjpark@kw.ac.kr)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gjkim@inu.ac.kr)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 조직연구 분야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조직학회보'의 2004년 창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8년 동안 한국조직학회보의 조직연구 주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직학은 행정학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서 정부 및 관련 조직 내·외 관련 연구를 통하여 정책, 정부,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의 성과를 향상하고 공공이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학에 관한 그간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연구를 살펴보고 관련 연구들이 제시하는 방향성과 함의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학에서의 조직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한국조직학회보는 2004년 첫 논문이 게재된 이래 우리나라 행정학의 조직학 연구의 주요 학술지 중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 학술지의 명칭은 해당 학술지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나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한국조직학회보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학 학술지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조직'이라는 단어를 학술지 제목으로 선정한 학술지이다. 따라서 한국조직학회보의 연구경향은 우리나라 행정학의 조직학 분야 연구 동향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유의미한 대리척도(proxy)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조직학회 공식 홈페이지¹⁾ 학회보 소개에 의하면 한국조직학회보는 연구대상으로서 중앙정부 조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조직 그리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조직을 아우르며, 연구주제로서는 조직구조, 조직행태, 조직문화, 조직학습, 혁신, 거버넌스, 리더십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직행정에 관한 연구가 체계화 된 시기는 조석준 교수의 「조직관리론」(1963)과 김운태 교수의 「조직관리론」(1966)이 발행된 때인 1960년대 중반으로 본다(이양수, 1989). 한국조직학회보가 국내 조직행정 연구가 시작되고 약 40년 후에 창간된 학술지이지만, 한국 행정학의 여러 학술지 중 조직분야 연구에 초점을 둔 최초의 학술지인 것을 고려할 때, 한국조직학회보 조직연구주제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조직행정학 분야에 있어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한국조직학회보 게재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본 학술지가 조직행정학의 높은 전문성을 가진 한국 조직행정학의 대표적인 학술지이며, 다른 행정학 학술지

1) <http://www.kaos.or.kr>

의 경우는 인사, 재무, 정책학 등 조직행정 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모든 행정학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행정학 학술지이기에 제외하였다. 특히 행정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술지(예. 한국행정학회보, 행정논총,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연구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의 논문이 조직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라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²⁾ 그리고 저서들의 경우는 대부분 교과서의 형태로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구 경향분석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경향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연구 주제 및 연구내용의 경향에 초점을 두는 것과 연구 접근방법³⁾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 있다(전영한, 2016; 이창원, 2008). 본 연구는 전자인 연구 주제의 변화에 중심으로 두고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조직행정학의 연구경향에만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학계의 연구경향과 더불어 정부에서 조직 관련 중점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권별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즉,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 관련 중점사항들과 한국조직학회보의 연구경향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 전체 조직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서에서 지향하는 조직관리 방향 및 주제들이 조직학회보의 연구 경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기초통계 및 주제어 빈도 분석만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한국조직학회보 논문에서 추출된 주제어들을 대상으로 동시출현(co-occurrence) 네트워크 분석을 하여 연구대상 논문들에서 출현한 각 주제어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한 후, 이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연구주제어 빈도분석 결과와 정부조직관리지침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정부 정권별 연구주제어 빈도 차이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 그림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또한 양적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물의 주제어 빈도 차이를 살펴본다. 다른 분석 방법으로는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 조직행정학 연구주제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2) 조직행정학은 학제적 성격상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박통희, 1996; 오석홍, 2018).

3)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분석은 분석단위(개인/집단/조직), 분석수준(미시/거시), 연구방법(질적/양적/혼합), 분석대상(중앙정부/지방정부/준정부/민간조직 등) 등이 이에 포함된다.

조직연구의 경향을 세밀하게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조직학회보 조직연구 경향의 함의와 앞으로의 과제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행정학 조직연구경향 선행연구 검토

한국 행정학은 지난 67여년⁴⁾ 동안 국내·외 행정현상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출판되며 양적·질적 측면에서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이러한 행정학의 발전 모습 및 연구경향을 정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축적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행정학 분야별(예. 정책학, 조직행정, 지방행정, 행정학 전반 등) 그리고 학술지별(예.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지방행정연구 등)로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분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유홍림, 2009).

한국 행정학의 연구경향에 분석을 실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행정학 분야 전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연구(안병만, 1986; 이영균, 1994; 권경득, 1996), 정책학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김인철, 1992; 김행범, 1995; 노화준·최성락, 2002; 목진휴·박순애, 2002), 인사행정 분야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하태권, 1995; 유민봉, 1996), 지방행정론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이승중, 1996; 이병렬·박기관, 2002) 등이 있다. 그리고 조직행정학 관련 연구경향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조직이론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논문(이양수, 1992; 김병섭, 1995); 박통희, 1996; 이재은, 2006)과 조직연구의 주제 및 방법론의 경향을 연구한 연구(이창원, 2008; 전영한, 2016; 윤건수, 2020)가 대표적이다.

조직이론 분야의 연구경향에 대해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먼저 이양수(1992)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 미국에서 출간된 조직행태론 관련 교과서 52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여 개인, 집단, 조직차원 등 분석 단위별로 구분하여 행태적 변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병섭(1995)은 1967년부터 1995년 사이에 행정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국내 주요대학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론, 구조론, 정치권력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연구경향을 정리하였다. 이재은(2006)은

4) 한국에 행정학이 소개된 시기는 정인홍의 저서 「행정학」(서울:제일문화사, 1955)이 출판된 때로 보며, 행정학의 체계적인 연구가 시도된 시기는 학국행정연구회가 조직된 때인 1956년으로 본다(안병만, 1986; 이재은, 2006)

1967년부터 2002년까지 약 35년간 한국행정학회에 게재된 77개의 조직이론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조직이론의 연구경향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조직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진척된 것은 1990년대 이후임을 발견하였으며, 1980년대까지는 이론의 검증이나 적용에 관한 논의가 주된 연구의 목적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정책대안제시의 목적을 가진 연구가 급증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조직이론의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계량적 접근방법(37.7%)보다는 서술적 접근(62.3%)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창원(2008), 전영한(2016), 윤견수(2020)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계량적 접근방법을 사용한 연구논문이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직행정학의 연구주제 및 방법론의 경향에 대해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창원(2008)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행정학 분야 7개의 학술지에서 게재된 조직연구 논문 중 실증적 연구논문 80개 대상으로 분석단위, 주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차원의 연구가 전체 논문의 50%를, 조직차원의 연구가 45%, 집단차원의 연구가 5%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인차원의 연구에서는 97.5%의 논문이 개인차 및 직무태도를 주제로 사용하였으며, 집단차원의 연구에서는 75%의 논문이 리더십을 주제로, 조직차원의 연구에서는 52.5%의 논문이 조직효과성을 주제로 사용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 외에도 조직차원의 연구에서 19.4%의 논문이 조직구조, 13.9%의 논문이 조직문화를 주제로 연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87.8%의 논문이 설문조사를 사용한 연구였음을 보여주었다.

전영한(2016)은 1956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 10개에 게재된 총 825편의 조직연구 논문을 연구주제 및 연구 접근방법에 따라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조직행태, 조직효과성, 조직변화, 조직구조, 리더십, 조직문화의 비중이 높음을 발견하였으며, 연구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2000년대 이후에는 미시적 접근과 계량적 분석 방법이 우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행정학 조직연구경향에 관한 연구는 2020년 발간된 대한민국의학술원의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행정학」 중 제2장 ‘조직론’이다. 본 연구에서 윤견수(2020)는 전영한(2016)의 연구보다 조직연구 대상의 폭을 넓혀 200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20년간 한국행정학회보에 게재된 1,134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주제의 경향에 있어서는 전영한(2016)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인 조직행태, 조직성과, 조직구조, 리더십 등의 비중이 높음이 발견되었다. 다만, 새로운 발견으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현상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음이 발견되었다. 연구방법 경향으로는 질적연구 논문이 양적연구논문의 1/3이 채 안 되게 나타나 이창원(2008)과 전영한(2016)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러 선행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행정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먼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양수, 1992; 김병섭, 1995; 박통희, 1996; 이재은, 2006)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시기별 연구경향을 보여주었지만, 정부 정권별(대통령 임기)로 시기를 나누어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정부 조직행정의 실무적 측면에서의 중요도와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는 학술적 조직연구가 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분야(예. 정권별 국정기조를 중심한 조직업무 및 조직관리 주요 분야)에 적용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창원, 2008; 전영한, 2016; 윤전수, 2020)의 경우에는 연구동향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논문의 빈도수를 합산하여 보여주는 내용분석 방식은 개념(중심어)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된 논문주제어와 정부조직관리지침과의 비교, 그리고 연구주제어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다른 관점으로 조직행정학 연구동향을 검토할 수 있게 하며, 조직행정 연구방향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Ⅲ.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의 데이터는 논문관련 데이터와 정부조직관리지침 데이터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본 연구의 학술지(한국조직학회보) 데이터는 2022년 6월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에서 수집되었다. 우선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한국조직학회보’를 검색한 결과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조직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총 365편의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해당 데이터에서 논문 중복(11건), 논문이 아닌 심사규정집 및 자료집 등(11건)을 제외한 343건의 논문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로 선정하고 각 논문에서 논문 주제어(keyword)를 추출하였다. 주제어를 추출한 이유는 주제어는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명대상 및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논문들의 양적(quantitative)·질적(qualitative) 분류는 343건 논문의 초록에서 방법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 양적 혹은 질적으로 분류하였다. 각 논문 초록에서 방법론을 유추할 수 없는 경우 각 논문의 원문을 읽고 사용된 방법론을 분류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부의 조직관리 관련 핵심어 추출 대상으로 선정한「정부조직 관리지침」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웹페이지 자료실에서 한국조직학회보 논문 출판기간인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동기간에 연단위로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각 세부 절차는 분석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IV. 분석 결과

1. 연구 주제어 빈도분석

최초 분석에서 총 343개의 논문을 토큰화(token) 결과 총 1,417개의 주제어가 확인되었고 총 4개의 결측값이 존재하여 이를 제외한 1,413개의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등장한 총 주제어들에서 중복 주제어들을 통합하여 고유 주제어 등장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총 970개의 독립적 주제어가 확인되었다. 이들 970개의 주제어에 대한 분석 실시 전 유사 혹은 중복 주제어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유사성이 높은 주제어들을 확인하고 중복된 주제어들을 통합하였으며 통합의 기준이 된 주제어와 통합된 주제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중복 주제어 통합결과 기존 970개의 주제어에서 943개의 주제어로 총 27개의 단어가 감소되었다.

〈표 1〉 기준 및 중복 주제어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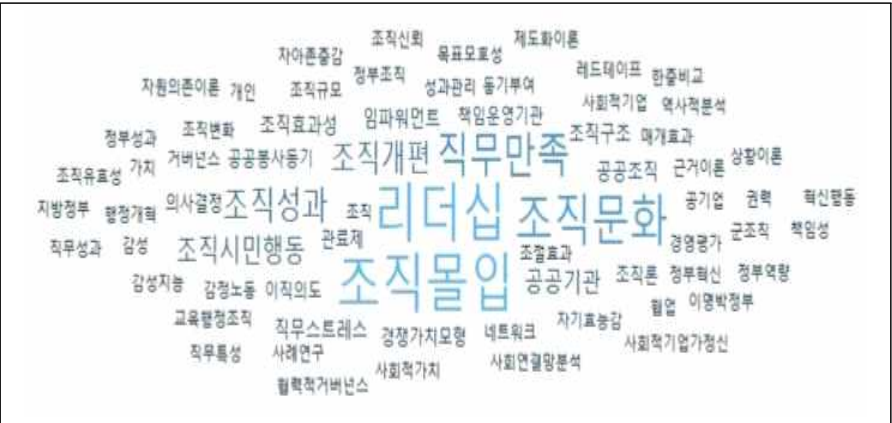
기준 주제어	중복 주제어	기준 주제어	중복 주제어
리더십	거래적리더십, 감성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서번트리더십, 리더십유형	사회연결망	사회적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분석
공공기관 이직의도	이직의도	의사결정	의사결정참여, 계층적의사결정
임파워먼트	심리적임파워먼트	조직개편	행정조직개편,

8 한국조직학회보 (제19권 제2호)

			정부조직개편접근법, 정부조직개편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조직문화	조직문화평가도구, 조직문화변화관리, 조직문화역량
관료제	일선관료제, 관료제조직구조, 지방관료제, 한국관료제	조직효과성	조직효과성측정지표
조직론	조직이론, 행정조직론	협업	협업관계조정
경영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		

총 943개의 독립적 주제어들에 대한 빈도분석 및 효율적 시각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핵심어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2회 이상 등장한 주제어들의 개수를 파악한 결과 총 174개의 주제어가 등장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워드클라우드(wordcloud)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3회 이상 등장한 주제어 개수는 69개로 나타나 시각화에 적합하였다. 총 69개의 주제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에는 <그림 1>와 같으며 주제어가 등장한 빈도수가 높을수록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주제어 글자도 상대적으로 크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의 워드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주제어들의 빈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3회 이상 등장 주제어 워드클라우드



〈표 2〉 4회 이상 등장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리더십	32	공공봉사동기	8	감정노동	5	사회적기업	4
조직몰입	32	관료제	8	네트워크	5	성과관리	4
조직문화	27	이직의도	8	자기효능감	5	정부조직	4
직무만족	25	조직론	8	조직	5	정부혁신	4
조직개편	18	책임운영기관	8	거버넌스	4	조직규모	4
조직성과	16	조직구조	7	경영평가	4	조직변화	4
조직시민행동	13	조직효과성	7	공기업	4	행정개혁	4
공공기관	11	직무스트레스	7	근거이론	4	협업	4
공공조직	9	경쟁가치모형	6	동기부여	4	-	
임파워먼트	9	의사결정	6	매개효과	4		

주제어의 빈도를 통한 연구경향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리더십’, ‘조직몰입’, ‘조직문화’, ‘직무만족’의 주제어들이 25회 이상 등장하여 가장 많은 연구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 이창원(2008), 전영한(2016), 윤견수(2020)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비슷한 연구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제어 ‘조직구조’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빈도수를 보여준 반면, 상위 선행연구들에서는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어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의 주제어들로는 ‘조직개편’(18회), ‘조직성과’(16회), ‘조직시민행동’(13회) 등으로 조직학과 직접 연관된 주제어들이 다수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빈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이론 자체가 주제어로 제시되기보다는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변수 위주로 주제어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회이상 등장한 상위 38개의 논문 대부분에서 ‘조직’이라는 주제어가 등장하여 한국조직학회보의 취지에 맞는 조직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주제어 ‘조직개편’, ‘조직시민행동’이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어, 한국조직학회보가 행정학의 타학술지 대비 ‘조직개편’ 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물이 게재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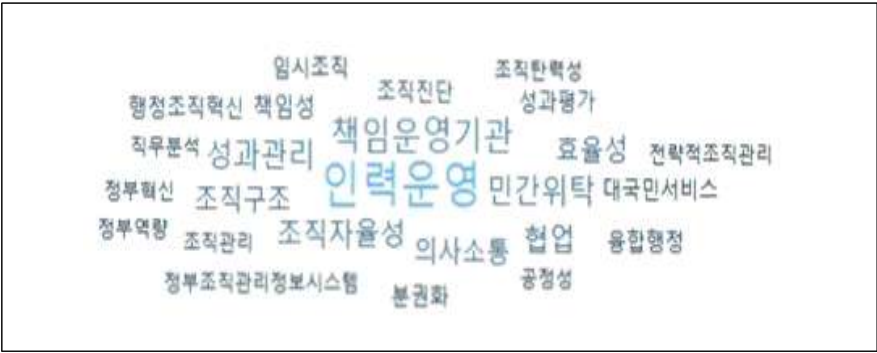
2. 정부조직관리지침 주제어 빈도분석

다음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관련 증점사항들과 한국조직학회보의 연구경향의 일치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고 공표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활용하였다. 매년 발표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의 경우, 추진 전략 및 과제에서 정부조직 관리 방향과 조직관리에 있어 개선점 혹은 지향점을 명시하고

있다. 추진 전략 및 과제에서 중점 목표와 세부목표가 제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목표를 자료집에서 도출하였다. 그 후 각 목표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어를 도출하여 한국조직학회보의 주제어들과 연결(matching)하여 조직관리지침에서 제시되는 조직관리 목표와 조직학회보에서 등장하였던 주제어들을 동시에 열거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 전체 조직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서에서 지향하는 조직관리 방향 및 주제들이 조직학회보의 연구 경향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추진전략과 과제에서 주제어들을 도출한 결과 총 238개의 주제어가 확인되었다. 이들 238개의 주제어들에 대하여 중복된 주제어들을 분류한 결과 총 32개의 독립적 주제어가 발견되었다. 이들 32개 주제어들을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를 <그림 2>과와 같으며 높은 빈도로 등장한 주제어들에 대한 <표 3>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정부조직관리지침 핵심 주제어 워드클라우드



<표 3> 정부조직관리지침 핵심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인력운영	29	효율성	14	성과평가	6	분권화	3
책임운영기관	19	조직자율성	13	대국민서비스	5	융합행정	3
성과관리	18	협업	13	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	5	임시조직	3
민간위탁	17	책임성	11	조직관리	5	전략적 조직관리	3
의사소통	14	조직진단	9	직무분석	5	조직생انس성	3
조직구조	14	행정조직혁신	8	정부혁신	4	환경대응전략	3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추진전략과 과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어는 ‘인력운영’(29회), ‘책임운영기관’(19회), ‘성과관리’(18회), ‘민간위탁’(17회) 등이었다. 이어서 ‘의사소통’, ‘조직구조’, ‘효율성’, ‘조직자율성’, ‘협업’ 등의 주제어가 13회이상 출현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등장한 주제어를 기준으로 조직학회보의 주제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책임운영기관-공공기관’, ‘성과관리-조직성과’, ‘조직구조-조직개편 및 조직구조’, ‘조직자율성-임파워먼트’, ‘협업-협업’, ‘행정조직혁신-정부혁신’ 등의 주제는 유사성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 ‘인력운영’, ‘민간위탁’, ‘의사소통’, ‘효율성’, ‘책임성’, ‘조직진단’ 등의 주제는 조직학회보에서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조직학회 논문 주제어 기준에서 살펴보면 상위빈도 주제어인 리더십, 조직몰입, 조직문화,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공공봉사동기, 관료제 등의 주제어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추진전략과 과제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난 이유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나타난 주요 중심단어들의 경우는 대부분 집단 및 조직 단위에서 논의되는 주제어인 반면, 조직학회 논문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준 주제어는 많은 경우(예.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공공봉사동기’ 등) 개인차원의 연구결과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른 이유로는 정부에서 조직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조직 관련 주요 중점사항들과 학계에서 조직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조직연구 주요주제 간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3. 정권기간 별 주제어 빈도분석

위와 같이 한국조직학회보 창간 이래 전체 게재논문의 주제어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경향이 행정부(정권)의 영향에 따라 차별화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정권별로 세부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복되는 단어를 재코딩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학술지 출판 기간을 대통령 임기별로 분리하여 빈도분석과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기간의 분류는 2004-2007(노무현 정부), 2008-2012(이명박 정부), 2013-2016(박근혜 정부), 2017-2022(문재인 정부)로 설정하였다. 이들 기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첫째, 노무현 정부 시기(period)에는 50개의 논문에서 총 183개의 독립적 주제어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2회 이상 출현한 18개의 주제어를 시각화하였다. 둘째,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본 분석 결과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각 정권기간별로 나타난 중심주제어들이 각 정권별 국정철학 또는 국정운영 기조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학계의 중심연구주제가 각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 보다 정권기간 기준 한 걸음 늦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기간 중 한국조직학회보의 연구경향은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이명박 정부 기간 중 한국조직학회보의 연구경향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일명 국민의 정부로서 IMF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규모축소, 민영화, 개방형인사제도 등 경쟁과 시장메커니즘을 적용한 정부혁신 방안을 추진하였다(김정렬·한인섭, 2008; 남궁근, 2017). 이러한 혁신방향은 조직행정 주제어 중 ‘조직구조’로 대신할 수 있다.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사회갈등이 증가하는 환경속에서 정부의 자율관리, 시민참여, 투명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등을 정부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였다(황혜신, 2005; 염재호·하민철·길종백, 2008; 남궁근, 2017).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국조직학회보의 연구경향에서 중심 주제어로 나타난 ‘조직문화’, ‘조직시민행동’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행정 연구경향과 정부 국정운영 기조(또는 정부업무)와의 시간적 차이(time lag)는 행정현상을 질적·양적 방법으로 관찰·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근거)로 연구하는 행정학 연구의 특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Edwards, 2004; Newman, 2016; Walker et al., 2019), 이는 비단 행정학만의 특징이 아닌 많은 사회과학 연구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Gerring,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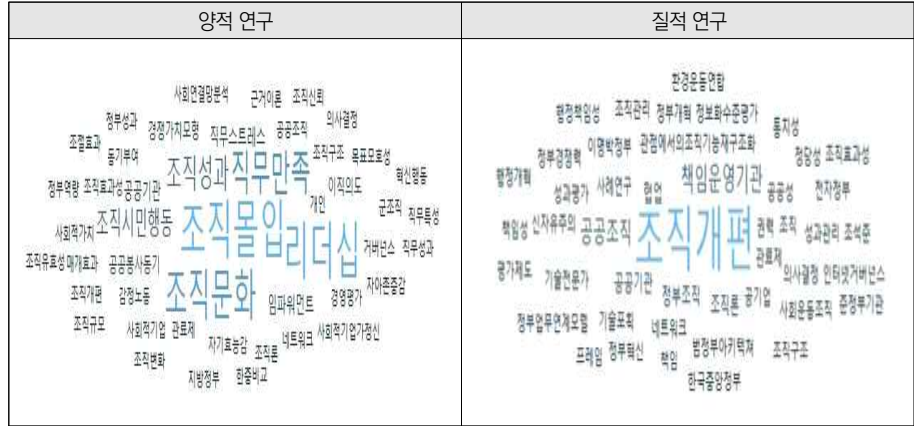
4. 양적·질적 연구 주제어의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직학회보의 논문들에서 양적·질적 연구 경향의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정 논문의 양적 혹은 질적연구 분류는 논문의 초록, 제목, 주제어를 통하여 분류하였으며, 앞서 제시된 항목들에서 연구의 접근방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논문의 원문을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분류결과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조직학회보의 양적 연구는 총 204건, 질적연구는 139건으로 나타나 양적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양적·질적 연구에 대한 위드클라우드 시각화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의 경우, 총 204개의 논문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총 863개의 주제어가 발견되었다. 앞서 <표 1>에서 제시된 중복 단어들을 통합하고 독립적 주제어들을 추출한

결과 총 541개의 주제어들이 확인되었다. 이들 주제어들에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를 위하여 3회이상 등장한 주제어들을 분류한 결과 47개의 주제어가 도출되었다. 이들 주제어의 워드클라우드는 <그림 4>에 상위 빈도 주제어들은 <표 4>와 같다. 질적연구의 경우 총 139개의 논문에서 총 553개의 주제어가 확인되었다. 결측값을 제외한 뒤 <표 1>에서 제시된 중복 주제어들을 통합하고 독립적 주제어들을 분류한 결과 총 470개의 독립적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이들 주제어들에 대한 효율적 시각화를 위하여 총 2회이상 등장한 주제어 46개를 사용하여 <그림 4>의 워드클라우드와 <표 4>의 빈도를 구성하였다.

<그림 4> 양적·질적 연구 주제어 워드클라우드



<표 4> 양적·질적연구 및 정부조직관리지침 주제어 빈도

양적연구		질적연구		정부조직관리지침	
조직몰입	32	조직개편	15	인력운영	29
리더십	31	책임운영기관	6	책임운영기관	19
조직문화	27	공공조직	5	성과관리	18
직무만족	25	공공기관	4	민간위탁	17
조직성과	16	정부조직	4	의사소통	14
조직시민행동	13	조직론	4	조직구조	14
임파워먼트	9	협업	4	효율성	14
공공봉사동기	8	공기업	3	조직자율성	13
이직의도	8	관료제	3	협업	13
공공기관	7	권력	3	책임성	11
직무스트레스	7	사례연구	3	조직진단	9
경쟁가치모형	6	의사결정	3	행정조직혁신	8
-	-	조직	3	성과평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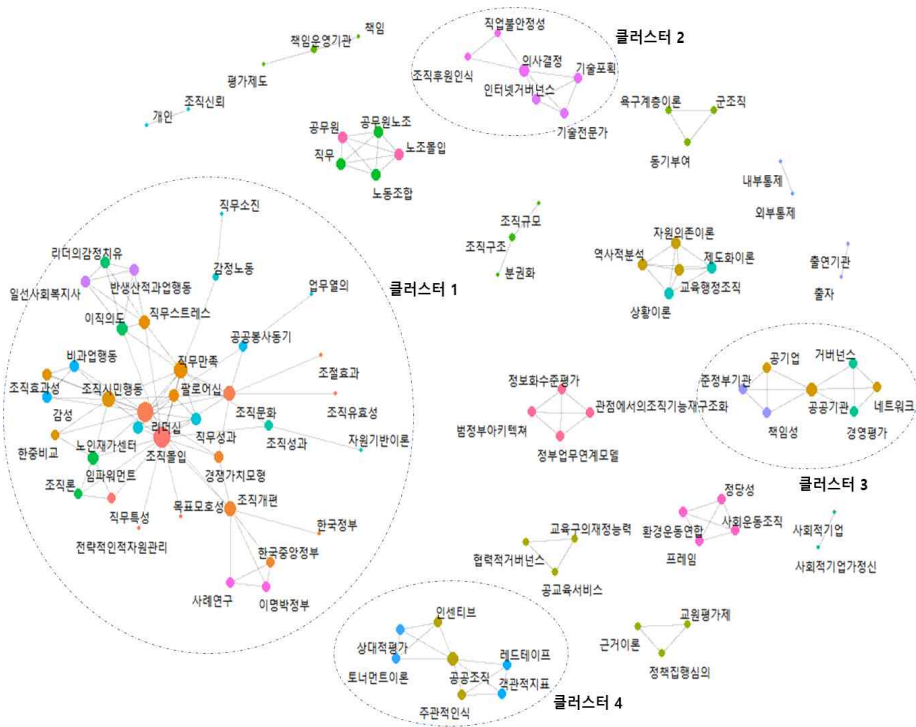
〈표 4〉에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서 높은 빈도로 제시된 주제어 분석결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주제는 상이한 방향으로 연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양적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조직몰입’, ‘리더십’, ‘조직문화’, ‘직무만족’, ‘조직성과’ 등의 주제어는 질적연구의 주요 등장 주제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질적연구에서 자주 연구된 ‘조직개편’, ‘책임운영기관’, ‘공공조직 및 공공기관’, ‘협업’ 등의 주제어도 양적연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조직학회보 게재 논문의 양적·질적 논문을 정부조직관리지침과 살펴보면, 연구기간 동안에 양적연구에서는 ‘조직성과’, ‘공공기관’ 등의 주제어만이 정부조직관리지침 핵심어에 등장하나, 질적연구의 경우 ‘조직개편’, ‘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 ‘협업’ 등의 주제어가 정부조직관리지침에도 유사하게 존재하여 질적 연구가 양적연구보다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의 방향과 일치하는 연구경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5. 동시출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조직학회보 논문 343개에서 추출된 주제어들을 대상으로 동시출현(co-occurrence)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논문에 대한 식별번호(ID:identification)를 부여하고 각 논문들의 주제어를 토큰화(token)한 결과 논문 식별번호가 부여된 1,413개의 주제어가 생성되었다. 동시출현 분석의 경우 분석대상이 되는 개체에 두 단어(어휘)가 어떠한 빈도로 동시에 등장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경우 각 논문이 분석대상이며 각 논문 속에 출현하는 주제어들이 분석단위이므로 한국조직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내에서 존재하는 주제어들이 얼마나 함께 출현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시출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주제어를 대상으로 동시출현하는 쌍(pair)을 도출한 결과 총 2,236 쌍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동시출현 쌍의 경향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나, 동일한 논문 내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주제어들 나열한 것이기에 조직학 연구 전반의 경향을 살펴보기에는 일정 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시출현 된 주제어들에 대한 네트워크 맵(network map) 시각화를 통하여 연구대상의 논문들에서 출현한 각 주제어들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분석 데이터 내에서 동시에 출현한 주제어들 전체를 시각화하여 동시출현한 쌍의 빈도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내 주제어 동시출현 전체를 시각화 하였다.

〈그림 5〉 동시출현 주제어 네트워크



본 연구의 동시출현 주제어 네트워크는 〈그림 5〉와 같다. 네트워크 시각화를 데이터 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출현단어의 총 쌍(pair)의 개수는 2,236개였으며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하여 이들 중 동시출현횟수가 2회 이상인 326개의 쌍(pair)을 선별하였다. 둘째, 326개의 쌍(pair)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성한 결과 방향성이 없는(undirected) 97개의 노드(node)와 163개의 엣지(edge)가 도출되었다. 셋째, 해당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5〉의 네트워크 그래프(network graph)의 전체 연결중심성지수는 약 .142이었다. 각 노드(연결중심성 4 이상)의 중심성지수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제시된 중심성 지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각화된 네트워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주제어들의 클러스터(cluster)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네트워크의 시각화가 동시출현 주제어로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각 클러스터 내에 노드들의 쌍이 연구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 클러스터 내에 주제어가 6개 이상 등장한 주요 클러스터들은 총 4개였다. 이들 클러스터들의 중심에 있는 주제어들을 살펴보면, 클러스터 1은 ‘조직몰입’,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 등이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어 단일 클러스터 내에 다수의 주제어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클러스터 2는 ‘의사결정’이, 클러스터 3는 ‘공공기관’이, 클러스터 4는 ‘공공조직’의 주제어가 핵심 노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클러스터 1의 경우 조직학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이론들과 관련된 주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이외에 클러스터들에서는 조직 자체, 기술, 평가 등과 관련된 현안들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주제어별 연결중심성 및 표준화 점수

주제어	연결 중심성	표준화 점수	주제어	연결 중심성	표준화 점수	주제어	연결 중심성	표준화 점수
조직몰입	17	0.177	직무성과	5	0.052	감성	4	0.042
리더십	15	0.156	노인재가센터	5	0.052	비과업행동	4	0.042
직무만족	11	0.115	팔로어십	5	0.052	리더의 감정치유	4	0.042
조직시민행동	9	0.094	의사결정	5	0.052	반생산적 과업행동	4	0.042
조직문화	8	0.083	경쟁가치모형	4	0.042	일선사회 복지사	4	0.042
조직개편	7	0.073	역사적분석	4	0.042	공무원노조	4	0.042
임파워먼트	6	0.063	상황이론	4	0.042	노조몰입	4	0.042
이직의도	6	0.063	제도화이론	4	0.042	직무	4	0.042
공공기관	6	0.063	자원의존이론	4	0.042	노동조합	4	0.042
직무스트레스	6	0.063	교육행정 조직	4	0.042	공무원	4	0.042
공공조직	6	0.063	조직효과성	4	0.04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직학회보 창간 이래 연구 경향을 논문 주제어를 이용한 빈도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직행정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한국조직학회보의 양적·질적 연구동향과 정부조직관리 지침과의 비교를 통하여

합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학문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조직학회보 게재논문 주제어들에 대한 빈도분석 실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조직학 연구 경향과 유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높은 빈도로 등장한 주제어들은 본 학회보의 취지에 맞는 조직학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조직학회보의 기존 연구들이 우리나라 조직학 연구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의 주요 연구 대상인 정부 조직의 관리에 대한 합의 제시에 있어 한국조직학회보에 게재되었던 연구들의 정부조직관리지침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기관’, ‘조직성과’, ‘조직구조’, ‘임파워먼트’, ‘협업’, ‘정부혁신 분야’ 등에서 정부조직관리 지침과 유의미한 유사성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조직관리지침에서 중요히 여기는 조직관리 방향과 한국조직학회보에서 이루어진 연구 간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관련 분야들에서는 한국조직학회보의 연구경향이 정부조직관리의 실무적 측면과 상관관계가 높고 이루어진 연구들이 정부 조직관리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조직학회에서 자주 다루어졌던 주제들(예., 리더십, 조직몰입, 직무만족)이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자주 나타난 ‘인력운영’, ‘민간위탁’, ‘의사소통’, ‘효율성’ 등의 주제는 한국조직학회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조직학 연구와 정부조직관리 간 연계성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학문과 실무 간 일정 간극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조직학을 연구함에 있어 정부에서 추구하는 조직관리 방침 혹은 조직 개선 방향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실제 정부조직에서 추구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조직학이 보다 실무적 접근을 지향할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조직학회보의 연구경향을 정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통적으로 ‘조직몰입’, ‘조직문화’, ‘직무만족’ 등의 주제는 모든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져 해당 주제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초와 상관없이 꾸준히 연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각 정권별로는 유의미한 주제어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각 정권의 국정운영 기초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기간상으로 다음 정권 기간에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정권이 변경되고 나면 국정철학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수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해당 정권의 관련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된 뒤에 이를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직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을 양적·질적으로 분류하고 방법론별 주제어 빈도분석 및 워드클라우드 시각화를 통하여 연구 주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는 다소 상이한 연구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의 접근방법의 차이에서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양적 연구의 경우, ‘조직몰입’, ‘리더십’, ‘조직문화’, ‘직무만족’ 등 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자주 이루어진 반면, 질적연구에서는 ‘조직개편’, ‘책임운영기관’, ‘공공조직’ 등 설문을 통하여 정량화가 어렵거나 문헌 검토 위주로 이루어지는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정부조직관리지침의 핵심 주제어들과 질적연구와의 연관성이 양적연구와의 연관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조직학 연구에 있어 정량적 척도를 통한 연구 접근방법을 정부 조직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에 적용시켜 양적 연구도 정부조직관리 중점 방향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학계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주요 주제어들을 도출한 결과 가장 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높은 중심성 지수를 나타낸 주제어들은 ‘조직몰입’,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 등으로 조직학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들이었다. 그 이외에 주요 클러스터들은 주로 정부 혹은 조직 실무와 연관성이 높았다. 이 같은 점은,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조직학 이론들과 우리나라 정부 조직 실무 간 연구 주제의 연결성 혹은 직접적 관계(tie)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동시출현 네트워크에서 조직학 이론 혹은 주요 연구 주제들과 정부 조직 관련 실무나 현안 주제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조직학 연구는 기존의 조직학 연구 이론 혹은 주요 변수들과 정부 조직관리 실무 관련 연결성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조직학회보 게재논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행정학에서의 조직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한 분야의 학술지에 대한 연구동향분석을 통하여 실제 연구가 이루어진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실제 정부조직관리 지침과의 비교를 통하여 학문과 실무 연구 간 비교를 실시한 점은 본 연구의 우리나라 행정학 조직연구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여가 있음과 동시에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한국조직학회보의 조직학 연구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직행정 연구의 동향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가 한

국조직학회보 발간 논문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행정학 학술지의 행정학 조직연구 동향에 대한 일반화 정도는 한정되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범위를 넓혀 일반 행정학 연구 학술지의 조직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조직학회보의 우리나라 행정학 조직연구 대표성과 타 학술지와 연구동향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조직학 연구주제와 조직 실무간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자료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국한되어 조직구성원 단위로 이루어지는 실무부분에 대한 함의는 다소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 연구 전반을 살펴본 관계로 연구 결과를 다수의 조직학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사례 연구에 적용시키는데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후 다양한 조직 내부의 지침 및 관리 방식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보다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 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 김병섭. (1995). 한국행정조직 실증연구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29(4): 1413-1440
- 김인철. (1992). 한국정책학 분야의 연구내용과 그 성격. 「한국행정학보」, 26(4): 1049-1066.
- 김정렬·한인섭. (2008). 행정개혁론: 국제비교와 실증분석, 박영사.
- 김운태. (1966). 「조직관리론」. 서울: 법문사.
- 김행범. (1995). 실증적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9(4): 1441-1462.
- 남궁근. (2017). 정부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제1차 정부혁신 포럼 발표집
- 노화준·최성락. (2002). 1990년대 한국 정책 분석 연구 동향. 「행정논총」, 40(4): 8-183.
- 목진휴·박순애. (2002). 한국정책학회보 10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11(1): 319-332.
- 박통희. (1996). 한국행정학의 「조직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적실성 제고를 위한 요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89-201.
- 안병만. (1986). 행정학보 속에 나타난 한국행정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20(2): 359-373
- 염재호·하민철·길종백. (2008).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재평가: 개념적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14(3): 67-96
- 오석홍. (2018). 조직이론. 박영사.
- 유민봉. (1996). 한국의 「인사행정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구조·내용의 진단과 대안모색. 「한국

- 행정학보」, 30(3): 187-197.
- 유홍립. (2009). 조직론 연구의 선구자, 조석준 교수의 학문 활동과 공헌. 「한국조직학회보」, 6(1), 5-40.
- 윤건수. (2020).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행정학. 「대한민국학술원」, 제10집 제2장, 35-54.
- 이병렬·박기관. (2002).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기고논문 (1989-2001)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3-41.
- 이승중. (1996). 한국의 「지방행정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새로운 내용체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0(3): 199-210.
- 이양수. (1989). 조직이론분야 교과목 설정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교과목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20: 135-158.
- _____. (1992). 조직행태론의 학문적 성격과 교과내용의 분석. 「사회과학논집」, 23: 143-189.
- 이영균. (1994). 행정학 연구의 변천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4): 1463-1479.
- 이재은. (2006). 한국 행정학의 조직연구 경향 실증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3(2), 1-26.
- 이창원. (2008). 한국행정학계의 조직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조직학회보」, 5(2), 31-57.
- 전영한. (2016). 한국행정학 60년 (1956-2016): 조직 연구. 「한국행정학보」, 50(5), 169-199.
- 조석준. (1963). 「조직학개론」. 서울: 법문사.
- 하태권. (1995). 한국인사행정의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 연구경향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4): 1463-1483.
- 황혜신. 2005.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비교, 한국행정학회 2005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 Edwards, M. (2004). Social science research and public policy: narrowing the divide. Canberra: Academy of the Social sciences in Australia.
- Gerring, J. (2011). Social science methodology: A unified framew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man, J., Cherney, A., & Head, B. W. (2016). Do policy makers use academic research? Reexamining the “two communities” theory of research util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6(1), 24-32.
- Walker, R. M., Chandra, Y., Zhang, J., & van Witteloostuijn, A. (2019). Topic modeling the research-practice gap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9(6), 931-937.

Abstract and Key Words

Exploration of Research Trend in Organization Studies: Focusing on Published Articles(2004–2022) in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

Park, Seejeen

Kwangwoon University

Kim, Gookji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ince its foundation in 2004,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 has grown by publishing various organizational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end of organizational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by using 343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 between 2004 and 2022 and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guidelines published in the same peri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with frequency analysis of the keywords, this study identified that organizational studies weight on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was high. Second, there is a certain gap between the study and practice, although there is a high connection between the research topic of organizational studies and the actual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Third,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keywords for each regime, it was shown that the research topics related to each regime's principles appeared as research topics in the period of the next regime in terms of period. Fourth, the association between the keyword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guidelines and qualitative research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of quantitative research. Lastly,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almost no network relationship linking organizational theories or major research topics with government organization-related practices or current issu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the organizational research trend of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Organizational Studies, Research Trend, Contents Analysis, Network Analysis]